

## 조국은 수령의 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체의 조국관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봤는데요. 주체의 조국관을 정확히 인식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은 곧 수령의 품이라는 주체적 견해를 확고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국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근본핵으로 되는 조국은 곧 수령의 품이리는데 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은 변혁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 그리고 조국과 수령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해서 참다운 조국은 곧 수령의 품이라는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새롭게 확립했는데요. 참다운 조국, 사회주의조국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품입니다.

그러면 왜 조국은 수령의 품이라 하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다운 조국, 사회주의조국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품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조국이 수령에 의해 마련되고 수령의 영도하에 발전하며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습한 바와 같이 민중의 참다운 조국은 그들의 자주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조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국은 결코 저절로 마련되는게 아니죠. 그건 오직 노동자계급의 수령의 영도밑에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에 의해 마련되고 꽃피며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오랜 역사에 걸쳐 진행돼왔지만 노동자계급의 수령이 출현하지 못한 지난 시기에는 조국이 민중의 참삶과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은혜로운 품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빛나게 완성되게 되는데요, 그건 노동자계급의 수령이 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조국건설위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과 관련됩니다.

노동자계급의 수령은 변혁투쟁의 최고

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써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써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이러한 체계적 이해로부터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의 민족민중의 지위는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민족민중의 지위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민중의 결정적 역할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임을 잘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변혁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고 사회주의조국건설과정은 곧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조국의 모든 것을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건설, 즉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은 오직 수령의 영도밑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수령에 의해 개척되는 노동자계급의 변혁위업의 시원은 곧 사회주의조국건설위업의 시원이고 수령의 영도밑에 전진하고 완성되는 변혁투쟁과정은 다름아닌 수령의 영도아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조국은 수령에 의해 사회주의제도가 마련되고 공고발전되며 완성되어나가는 사회주의조국건설위업의 빛나는 결실인 겁니다. 참다운 조국, 사회주의조국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품이라고 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

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조국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품이라고 하는 건 다음으로 수령의 은혜로운 사랑과 은덕에 의해 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과 행복이 마련되고 영원히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수령은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의 최고체현자, 최고대표자로서 민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중에 대한 헌신적 봉사, 인간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푸는 건 노동자계급의 수령의 기본품성이고 수령의 모든 활동의 기저에는 숭고한 인간애가 놓여 있습니다.

수령은 민중의 참삶과 행복이 담보되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며 참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로운 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펴줍니다. 민중은 오직 수령의 품속에서만 존엄있는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위에 커다란 자국을 남기며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 수령은 민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걸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는 어버이이고 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조국은 민중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은정이 체현된 은혜로운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의 사랑과 은정을 떠나서는 참다운 삶과 행복에 대해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령은 사회주의조국과 뿔레야 뿔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중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고 참다운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의 품인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은 사회주의조국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위업을 이어받아 빛나게 완성해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4살 어린시절에 압록강을 건너지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조국광복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시하신 인민혁명정부노선과 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토대해서, 그리고 투쟁과정에서 자라난 수많은 골간을 중심으로 8.15광복후 지체없이 진정한 민중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으로써 민중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참다운 조국을 건립하셨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이북 민중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역사의 새 시대를 창조해나가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중으로, 존엄 있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민중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된 조국을 찾아주셨을 뿐 아니라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신 분도 위대한 주석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으뜸가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주석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는 겁니다.

사회주의조국 이북은 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그 위용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뿌리에서 자라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변함없이 승승장구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을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로 삼으시고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공고발전시키셨고 사회주의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선군영도를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명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셔서 오늘 이북이 사회주의의 본보기로 진보적 인류의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이북 민중을 뜨겁게 안아주시며 그들을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고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북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자주위업을 성공적으로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조국은 수령의 품
-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
- 주체의 조국 이북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의 조국관의 발현

로 수행할 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갖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은 민족민중의 운명이시고 조국의 운명이시며 위대한 수령의 영도는 민족민중의 생명이고 조국의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이북민중뿐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긍지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영광과 승리로 아로새겨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무

궁번영할 주체조국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 9월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중에는 이북이 아니라 이남에 고향을 둔 사람들 그리고 이북땅에서 불과 몇달이나 1년정도 살아본데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서자란 고향도 아니고 이북땅을 밟아본 일조차 없는 이들과 지도 인생말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이북으로 돌아간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의 품이 곧 진정한 어머니조국의 품이며 수령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그분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인생의 참된 보람과

영예, 행복이 있다는 천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은 진정한 어머니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그 어머니, 그 삶과 행복의 요람은 수령의 품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령을 떠난 조국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애국민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주체의 조국이라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행복을 바라며 살기 보다 삶의 영예와 존엄을 주는 위대한 수령 경

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길에서 순간을 살아도 값지게 살려는 숭고한 신념이 바로 오늘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중 모두는 언제나 이러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4월 28일~29일

#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조국관을 확립하는 문제는 우리 시대의 변혁실천이 제기하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인데요. 조국관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운명문제와 뗄 수없이 연관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써 오랜 역사적 기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왔습니다. 세기에 세기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속에서 논의되어온 이 중차대한 문제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에 의해 완전히 해명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김일성**주의가 밝힌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을 확립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옳은 인식과 자각을 갖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헌신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체의 조국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 확립을 위한 원칙적 요구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다운 조국을 창건하고 이끄는 수령에게 충

성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근본요구로 되는데요. 그건 우선 주체의 조국관의 본질과 관련됩니다.

이미 학습하신 것처럼 주체의 조국관은 조국을 곧 수령으로, 수령의 영도를 조국의 생명으로 보고 대하는 독창적인 조국관이지요. 주체의 조국관은 이런 본질로부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다운 조국을 건설하고 이끄는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 충성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만큼 주체의 조국관을 세우는데서 기본은 참다운 조국이자 곧 수령이고 수령의 영도이자 바로 조국의 운명,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을 높이 받들어 나가게 하는데 두어야 하는 겁니다.

수령에게 충성 다하도록 하는 것이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근본요구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참다운 애국자의 사상정신적 품모의 최고표현이고 그걸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수령에게 충성 다하는 건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인데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참된 애국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정치사상적 및 도덕의리적 품성의 바탕으로 되고

그걸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됩니다. 수령과 고탁을 함께 하고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어떤 환경에서도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은 참된 애국자의 기본 특징입니다. 이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발양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됩니다.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는 다음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조국의 귀중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이겠다는 각오와 의지는 조국의 귀중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해 형성되고 공고화되며 발현됩니다.

조국의 귀중성을 깊이 체득하는 것이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로 되는 건 우선 그것이 적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굳건히 지켜 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사상감정은 조국의 귀중성을 인식하고 자각하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자리잡게 될 때 사람들은 조국을 침

해하려는 자들을 끝없이 증오하게 되고 조국보위위업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게 되는 겁니다.

조국의 귀중성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끝없는 헌신감을 갖고 조국의 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조국은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의 보금자리이며 참된 삶과 행복이 시작되고 꽃피어나는 품인만큼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건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이지요. 조국에 대한 헌신성의 높이는 조국의 귀중성에 대한 체득정도에 비례하는데요. 조국의 귀중성을 절감하면 할수록 헌신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귀중성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는 건 사람들이 끝없는 헌신성을 갖고 조국의 부강발전이 이바지하게 되는 조건으로 되게 됩니다.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는 다음으로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셨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은 자기의 것에 대하여 잘알 뿐 아니라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우려는 자각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자기 것에 대한 민족적 긍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족적 자긍심은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우수한 것들에 대한 긍지이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로 되는 건 우선 그것이 민족의 모든 우수성과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우수한 것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높을 때 조국의 모든 것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북 민중은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향도따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산다는 높은 자긍심을 안고 있어 사회주의조국을 튼튼

히 지키고 빛내어나가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자주정신을 배양하고 참다운 애국자로 성장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상감정인만큼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끝없는 헌신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특히 세상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진 자긍심으로 가슴 높뛰게 할 때 조국관은 더욱 튼튼히 확립되게 될 겁니다.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체의 조국관확립의 원칙적 요구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는 주체의 조국관확립을 저해하는 사상조류인데요.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수한 모든

것을 덮어놓고 알보거나 부정하는 사상으로써 이건 주체가 철저히 서지 못한 사람속에서 나오는 사상경향입니다. 민족허무주의에 물젖게 되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 민중의 힘을 믿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의 노선과 정책까지도 믿지않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건 조국관확립에서 원칙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겁니다.

주체의 조국관확립에서 사대주의 역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사상조류인데요. 사대주의는 민족적 존엄과 영예는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큰 나라를 쳐다보고 섬기는 매우 유해로운 사상이요. 사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자기의 것은 다 나쁘고 남의 것만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굴러떨어지게 하며 자기 민족, 민중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무턱대고 따라가게 합니다. 결국 사대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내맡김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건 주체의 조국관을 확립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이 이

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겁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해야 할 건 자기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깔보는 민족배타주의나 대국주의는 더욱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대국주의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깔보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다른 나라에 내리먹이며 자기들에게 얹매어두려는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대국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의 이른바 강대성과 우월성을 고취하고 작은 민족과 나라를 멸시하면서 그 나라들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함부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내리먹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만 잘살려는 민족이기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런 대국주의는 사대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국주의자들은 언제나 그에 추종하는 나라와 민족의 추종자들과 결합되어 있는데요. 대국주의자들에게 붙어서 굽신거리며 추종하는 자들, 사대주의자들을 떠나서 대국주의적 전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추종하는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실

정에 부합되게 조국건설을 할 수 없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추종하는 나라와 민족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믿지 않고 남의 등에 업혀 잘 살아 보려는 쓸개빠진 나라와 민족이죠. 오직 자기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해 살며 투쟁해 나가는 민족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체의 조국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국주의자들의 전횡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소한 편견도 견결히 반대해 투쟁해야 합니다. 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은 오늘날도 세계의 주인노릇을 하면서 우리

의 내정에 깊이 간섭하고 우리 민중을 \*\*스럽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희생시켜 자기 이익을 쟁기고 우리 민중의 피를 빨아 자기의 살진 배를 더욱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중을 대국주의로 끌어들이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의 조국관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자주민주통일성업에서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4월 30일~5월 1일

## 주체의 조국 이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사람들은 자주위업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기관차가 바로 이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민중은 주로 외세에 짓눌리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는 어두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존엄있고 빛나는 주체의 조국을 가진 민족의 자긍심을 안고 이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민중의 희망의 등대, 인류의 이상향인 주체의 조국 이북을 고찰해보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은 구체적으로 자기 조국을 보고 대하는 견해, 관점과 입장인데요.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조국관은 주체의 조국 이북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주체의 조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북에 관해 우선 고찰하게 되는 건 이북은 민중 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회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

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이라는 건 민중이 조국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있고 조국의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조국이라 하면 그건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나라를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제도는 민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자주성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회제도죠.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정권과 생산수단이 민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민중을 위한 제도로,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참담게 규제되는 제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북은 무엇보다도 민중이 조국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제도가 마련된 곳입니다. 이북민중이 조국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건 그들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데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북민중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써 자주적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또한 조국의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제도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북에서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건 국가주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 기관, 물질과 생산수단을 비롯한 물질적 및 문화적 재보 그리고 사회관계 등이 철저히 민중에게 봉사하는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북 민중들은 국가활동에 널리 참가하고 국가정치생활에서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자기들의 자주성을 더 잘 수행하고 창조적 역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북은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현실로 빛나게 구현된 주체사상의 조국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셨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발전 풍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오늘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있는데요. 한 주체사상신봉자가 지구는 주체사상을 축으로 해서 돈다고 말한바도 있습니다만 주체사상은 진보적 인류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써 시대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고 주체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고 역사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밝혀주는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북은 주체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정치의 강국입니다. 자주정치라고 하면 그건 자기 신념에 기초해서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어떤 사대나 교조, 외세의 의존도 철저히 배격하며 자기 힘에 의거해 민족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정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북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자주정치를 일관하게 실시해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또한 경제적 자립의 모범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하는데요. 이북에서는 자체

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독창적인 온 사회의 인텔리화방침을 관철해 민족간부진지의 대부대를 육성하고 그에 의거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이북에서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단번에 우주공간에 쏘아 올린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상을 온 세계에 그대로 과시한 것이라 하겠죠.

이북은 또한 자위적 군사강국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군중시의 혁명철학을 제시하시고 선군영도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그분의 영도밑에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꾸렸기에 이북은 그 어떤 침략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체의 자위적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의 조국 이북을 고찰함에 있어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다음으로 이북은 민족성이 높고 발달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해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킨 나라는 지구촌에 이북밖에 없습니다. 민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민중의 자주성도 실현될 수 없

습니다.

이북은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해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있는 참다운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이북에서는 정권건설도 민족적 감성과 정서, 구체적 임무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민중정권으로, 경제도 민족민중의 이익, 나라의 융성번영의 물질적 담보로 되게 자립적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시킨 독창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을 빛나게 구현하며 민족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기 결합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 인사들과 민중을 한 품에 안아 뜨겁게 보살펴주십니다. 이처럼 민족애가 높고 발달되는 이북은 인간의 참된 삶이 꽃피는 행복의 요람이라 하겠습니다.

주체의 조국 이북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재건의 기치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 민중들은 생활체험을 통해 사회주의의 길에서만 민중의 운명이 개척될 수 있다는 걸 절감하면서 날

이 갈수록 사회주의를 더욱 동경하며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천재적 사상이론활동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울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원인과 교훈을 분석해주시고 사회주의재건의 진로를 명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그 재생열풍이 일게 됐고 그건 전세계적 범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세상에 발표되게 됐습니다. 《평양선언》은 주체사상에 기초해 사회주의위업을 새롭게 개척하는 운동의 투쟁강령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공동의 이념에 기초해 국제주의적 단결과 연대를 굳게 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게 하는 위대한 기치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함, 그 종교적 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들에게 승리의 자신감과 투지를 주고 사회주의운동을 양양으로 이끄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평양선언》의 채택으로 사회주의운동의 일시적 혼란상태가 끝나고 사회주의재건운동이 활성화되게 됐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은 사

회주의재건의 기치, 사회주의위업의 종교적 완성을 위한 등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의 조국 이북은 천출위인이시고 대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인류를 자주의 한길로 선도해 나가는 반제자주의 사령탑입니다.

오늘 자주의 흐름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운동발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시어 온 세계의 자주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역사의 자주적 흐름을 비상히 가속화시키고 계십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구촌위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이고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미국은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세계 자주화 실현의 기본 장애물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세계자주화전략으로써의 반제투쟁에서 반미투쟁을 우선시하고 세계 자주화의 주공방향을 반미투쟁으로 규정하시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은 단결하자는 구호하에 반제자주역량의 단결의 기치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가 축수를 뺏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미제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북에서 《푸에블로》호 나포, 《EC-121》기 격추를 비롯해서 미제의 핵의혹소동을 파탄시키고 미대통령 클린턴의 항복서인 담보서한을 받아내는 등

의 쾌승을 이룩한 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지략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주체의 조국 이북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이요 자주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애국애족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재건의 기치, 반제자주의 사령탑으로 우

뚝 솟아 빛을 뿌리는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입니다.

이런 주체의 조국을 가진 민족으로써의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 모두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조국 자주적인 연방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더욱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5월 2일~3일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의 조국관의 발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체의 조국관을 여러면에서 고찰해봤는데요. 주체의 조국관이 변혁실천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체의 조국관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주체의 조국관의 발현을 여러 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주체의 조국관의 중요한 발현으로 되는데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단일민족으로써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한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인공적으로 분열된 결과 산생된 문제요. 오랜 세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이 우리 민족에게 덮쳐온 고통과 불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우리 민족은 분열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건 민족모두에게 부과된 신성한 의무로 됩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

이 교시하셨습니다.

《통일은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입장이며 분열은 외세의존, 매국매족의 입장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이루어 후손만대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성스러운 투쟁으로써 이것은 주체의 조국관의 중요한 발현으로 됩니다.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주체의 조국관의 발현으로 되는 건 무엇때문이었습니까.

그건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이 땅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한반도 전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국통일문제는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전역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민족의 자주권은 민족

의 생명이고 기본권리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참된 삶을 누리려면 자주성을 가져야하고 민족이 민족으로써의 존엄과 영예를 가지려면 반드시 자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권을 잃은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면할수 없고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건 민족의 가장 근본적이고 사활적인 요구로 되는 겁니다.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려면 영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국토의 한 부분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민족의 일부가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민족적 자주권의 완전한 실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 전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건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됩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 살아가는 여건에서 민족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요. 민족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부합되게 자기 운명을 성공리에 개척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지배를 끝내고 한반도 전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건 남과 북, 해외 모든 동포들이 힘을 모아야 실현될 수 있는 민족적 위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단합된 역량으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하는 겁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또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한 핏줄을 이어받고 수천년을 한 강토위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요.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산생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립을 조장하는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고 남북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데 바탕해서 민족대단결을 이루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계급적 요구를 성취하려 하거나 일방이 타방이 먹으려 해서는 결코 이룩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이루어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면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은 언제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주체의 조국관의 발현으로 되는 건 다음으로 조국통일이 조국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무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온 겨레가 분열로 인한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풍습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다보니 남북사이에 말도 달라져가고 문화와 생활양식도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우리 민족의 분열은 나라의 부원과 민족의 힘을 조국의 발전을 위해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하고 조국의 끝없는 융성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인구상으로 보나 경제문화적으로 보나 남부러울 것없는 자주독립국가로써 그 당당한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투쟁하는 건 주체의 조국관의 중요한 발현으로 되는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그를 승리로 영도하고 계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

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고 남과 북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가 오랫동안 존재해온 현실적 상황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부합되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군님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고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인 겁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몸소 진두에서 힘있게 이끌고 계십니다. 통일위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성취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1994년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김일성주석님의 필생의 뜻이었던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해 8.15를 계기로 열리게 되어 있는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년보다 더 의의깊고 규모도 더 크게 열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겨레의 한없는 슬픔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굳센 통일외지와 단합된 통일애국세력의 위상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게 됐던 겁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영도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결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을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게 됐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건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고 그분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의 조국관의 중요한 발현으로 되는데요.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연방통일조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위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사회주의조국인 이북을 압살시키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 있는 미국의 전횡을 막고 그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앞차게 전개해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이회장을 위시한 이 땅의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광범위한 민족을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굳게 단합시키는데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5월 4일~5일